

찾아가는 탄소중립교육 1만명 수강

전주시, 시행 4개월 만에 달성... 11월까지 탄소중립 중요성·실천방안 소개 지속 추진

전주시가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운영 중인 찾아가는 탄소중립 시민교육의 참가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

시는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과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운영 중인 '전주시 찾아가는 탄소중립 시민교육'의 참여인원이 시행 4개월 만에 1만 명을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주시가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운영 중인 찾아가는 탄소중립 시민교육의 참가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

찾아가는 탄소중립 시민교육은 시민들에게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소개하는 것이 핵심으로, 시는 지난 6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는 미래세대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환경과 재활용,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를 통해 탄소저감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및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해왔다.

일례로 전주시 탄소중립 시민강사들은 지난 7일 초록빛유치원과 송천초등학교, 우림초등학교를 찾아가 탄소중립 교육을 실시했으며, 11일에는 아람어린이집과 상록어린이집, 대정초등학교를 찾아가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알렸다.

시는 또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부터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

산구청과 덕진구청, 36개동 주민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통우회 등 자생단체 회원과 경로당 이용 노인 등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전주시민 약 1만 명이 탄소중립 교육을 수강했으며, 교육 참가자들은 글로벌 기후위기 속에서 일상 속 탄소중립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5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탄소중립교육을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탄소중립 시민교육 사업을 운영해왔다.

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탄소중립 시민교육 사업 추진을 통해 전주시민들

이 탄소중립에 대해 알게 되는 뜻깊은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전주시민들이 탄소중립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고, 빈틈없는 촘촘한 교육사업 설계 및 추진을 통해 각계각층의 전주시민들이 탄소저감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탄소중립 교육은 150인 이상의 모임이나 단체, 기관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희망 날짜를 정한 후 전화(063-281-2750) 또는 전자우편(chara0403@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제26회 전주시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

시·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청려장·노인의 장·공로상 수여 등 진행

'제26회 전주시 노인의 날 기념식'이 12일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등 각급 기관장과 노인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열렸다.

전주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지회장 전영배)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박만봉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노인강령 낭독과 청려장(장수지팡이) 수여, 노인의 장 및 공로상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제26회 전주시 노인의 날 기념식'이 12일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등 각급 기관장과 노인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우범기 시장은 올해 100세를 맞이한 김형철 응(남, 우아2동)에게 무병장수의 상징인 청려장을 전달했다. 건강과 장수를 상징하는 청려장은 명아주로 만든 가뭇고 단단한 지팡이로, 통일신라 때부터 임금이 하사하는 전통이 내려져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모범노인과 노인복지유공자, 노인복지유공단체, 노인복지유공공무원 등에 대한 표창도 수여됐다.

전영배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장은 기념사에서 "질푸른 녹음을 보

내고 황금 들녘과 단풍으로 물들어 가는 계절의 계절 가을을 맞아 '제26회 전주시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코로나를 이겨내고 3년 만에 성대하게 개최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은 "어르신들이 정든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주형 통합돌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전주형 동네복

지가 완성되고 모든 어르신들이 행복한 전주가 되는 그날까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통합돌봄체계를 더욱 촘촘히 갖추고, 어르신들의 소득 보전과 사회 참여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다"면서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행복한 도시, 모든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복지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전주시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제공 나선다

전주시 덕진구, 14개 하천 대상 환경 정비 추진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최현창)가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기로 했다.

덕진구는 가을철을 맞아 하천산책로와 하천시설물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수천 등 14개 하천(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9개소, 소하천 2개소)을 대상으로 환경 정비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전수를 흐르는 만경강~전수천~아중천 등 약 56km 구간의 산책로와 제방을 중심으로 지난 5월부터 풀베기와 함께 토종식물의 서식 환경을 저해하는 유해식물을 제거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해당 구간에 설치된 운동기구 219개와 편의시설 343개, 관리시설 94개, 체육시설 28개 등에 대한 시설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보수할 예정이다.

특히 금학보와 추천대교 사이 구간에는 조경시설물이 없거나 밝기가 비교적 약한 만큼 야간에 산책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이날 말까지 발광형 표지병 교체 및 신규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최현창 덕진구청장은 "선선한 가을철을 맞아 하천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 플랫폼노동자 맞춤형 상담의 날 운영

전주시가 대리운전 기사와 퀵·배달 기사 등 플랫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과 건강한 삶을 돕기 위한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시는 12일 서부신시가지 전주시 플랫폼노동자 쉼터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겪는 스트레스 등 심리적인 문제와 건강, 취업 등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노동자 맞춤형

상담의 날'을 운영했다.

지난 4월에 이어 2회째 운영된 이날 맞춤형 상담프로그램에서는 전주고용센터와 전주근로자건강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건강상담 △심리상담 △취업상담 등이 제공됐다.

시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플랫폼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취업 상담을 통한 비정규 노동자의 일의 연속

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향후에도 플랫폼노동자가 건강한 마음으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의 상담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관계자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노동자들의 권익과 안전한 일터 문화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한옥마을에 명품 쇼핑 복합관광센터 유치 필요'

전주시의회 김윤철 의원, 체류형 관광 활성화 위해 제안

전주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옥마을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명품 쇼핑 복합관광센터 유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김윤철(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 의원은 12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한옥마을 제1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면세점 등 쇼핑과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를 복합적으로 갖춘 대규모 명품

복합쇼핑 관광센터를 건립해 전주 관광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해당 주차장은 입지 조건이 좋고, 경계 면적이 1만997㎡나 된다"며 "이곳이 전주의 핫플레이스로 부상한다면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는 것은 물론, 기존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현 주차장 단면을 지하 3층 규모로 늘려 주차 공간을 확장하고, 관광거점도시 선정에 따른 관광객 수요에 맞춰 지역특화상품관과 명품 의류관을 비롯한 도심형 면세점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린이인형극장을 비롯한 문화시설과 명품 식당, 드론 시연장까지 접목시키되 고도 제한에 따른 규제 완화 방안 마련에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회장 임근홍

도전과 개척의 역사!

'전문건설인'의 미래를 향한 도전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묵묵히 건설현장을 지키며 지역경제의 주축으로 그 역할을 다해온 전라북도의 전문건설인!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회원사의 권익신장과 업역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전문건설업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제12대 회장단·감사·운영위원

회 장	임근홍 (유)유림건설	김삼문 (유)향림조경	박찬용 (유)성지토건
부 회 장	김동수 (유)도곡건설	유홍중 (주)누리토건	김대식 아라온(주)
감 사	이선한 (유)금정건설	강훈희 (유)대가건설	김진호 (유)대안건설
운영위원	강상원 (유)반석	강용배 (주)천우에스엔씨	안길환 (유)우정건설
	김만성 (유)보성건설	신현철 (유)서영건설	임완택 (유)석금
	방한웅 (유)도암건설	윤현철 (주)한성개발	전성배 (유)아일건설
	오성권 (유)세정건설	장철성 (유)하늘채건설	홍동남 (유)정우건설
	임찬희 (유)모두건설	최영재 (유)성주건설	
	조성호 (주)일성건설		
	황중석 (주)효천토건		